

대구광역시

태왕 노기원, 정선카지노서 수십억대 도박 의혹...

고흥무, 경찰에 고발장 접수 노기원, 사실무근이다 반박 아파트 무상제공 사실 아나 말로하는 제보도 제보나 따져 그런 기사 내지 말아라 충고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가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를 향한 폭로전이 '점입가경'이다. 수위높은 폭탄발언 폭로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폭로전 논란이 가열되면서 사실상 동공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세상을 향해 프리미엄 신화를 낳은 태왕이 앞서는 세상을 건설한다는 구호를 내건 태왕은 2023년 7월 31일 국토부 평가건설도급순위 67위를 차지했다. 고 대표는 3일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가 정선카지노(강원랜드)에서 수십억대 게임을 했다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노 대표이사는 정선 카지노 VIP회원이다.

주)H센터 P 회장은 노 대표이사의 특별한 관계의 지인 M씨에게 흰색 벤츠 승용차량 7XXX를 장기간 무상 이용하게 했다. 이 회사는 태왕은 물론, 대구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둔 대구 종합중견기업이다. 고 대표는 H센터 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노 대표이사가 뇌물로 제공한 로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태왕의 이미지는 물론 신뢰는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태왕이앤씨 그룹 총수로서 정선카지노를 출입, 사회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받은 돈으로 도

박한것이 의심된다고 했다. 때문에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의 정선카지노 도박에 따른 자금 출처가 의심,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고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노 대표이사의 정선카지노 도박관련 모든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노기원 대표이사의 폭로전을 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본지는 반론권 차원에서 정선카지노와 관련,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의 입장을 들었다. 노 대표이사는 "아파트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회사자금을 유용한 일도 없다. 실제 강원랜드는 불법을 하는데가 아니다. 아무리 몰상식해도 개인 세금을 1년에 몇십억 내고 소득이 있는데 회사 돈으

로 강원랜드를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표이사는 "그런 제보... 대구광역일보님 말로하는 제보가 제보냐"고 따졌다. 사생활 전위여부를 확인 했느냐고 되물었다. 노 대표이사는 자신의 입장도 들어주고 얼마전 고흥무 대표가 지난달 31일 고소를 취리한 사실 알고 있느냐고 했다. 고 대표가 민형사상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대표의 불법행위도 대구광역일보에서 기사화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본지는 "고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기사화해야한다"고 답했다. 어쨌든 노 대표는 "이같은 내용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내지 말아라"고 했다. 김성용 기자

65년 만에 석유탐사 도전사... 95번째 산유국 꿈 이어간다

1959년 국립지질조사소 첫 탐사... 석유발견 실패 70년대 해외 의존 탐사... 80~90년대 석유공 주도 98년 천연가스층 발견 2004년 생산... 산유국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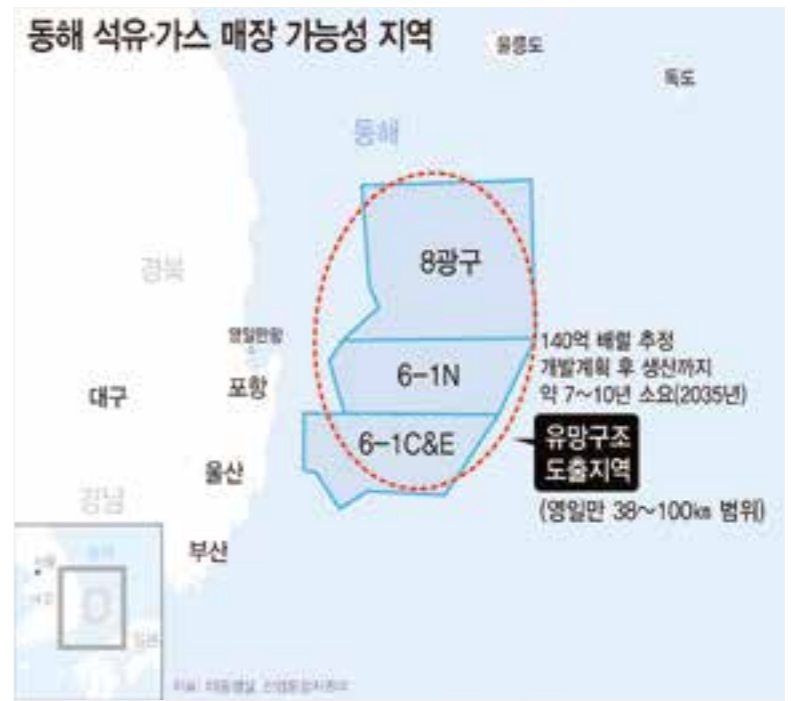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스·석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1959년 첫 석유탐사에 돌입했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실용은 수십년째 계속됐다. 거듭된 실패 끝에 동해에서 천연가스층을 발견했고, 2000년대 초 생산에 성공하며 세계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적은 매장량으로 인한 경제성 논란에도 탐사를 지속했고, 이번에는 140억 배럴, 2000조원 규모의 진정한 자원 금맥을 찾았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티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연말부터 실질적인 탐사에 돌입,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국내 대륙붕 탐사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9년 국립지질조사소는 전남 해남군 우항리 앞바다에서 최초로 석유탐사를 실시했다. 1964년부터 1977년까지 포항지역에서 탐사를 실시했지만 석유를 발견하는 것은 실패했다. 1976년부터 1981년에도 경남·전남지역에서 추가적인 석유 부존 가

능성을 조사했지만, 석유생성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도 판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 외국 석유회사와 손을 잡고 탐사에 돌입했다. 1970년 1월 1일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대륙붕에 대한 석유 탐사가 본격화되고, 투자비와 기술 모두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했지만 석유 발견에 실패하면서 모두 발을 뺐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스스로 석유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1979년 3월 석유공사를 설립하면서 석유개발을 본격 추진했다. 공사가 주도적으로 그동안의 자료를 기반으로 탐사계획을 수립하며 석유 탐사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98년 최초로 동해-1 가스전에서 경제성 있는 양질의 천연가스층을 발견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서, 전세계 95번째 산유국 진입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동해-1 가스전 인근 고래8 구조에서 경제성 있는 추가 가스층을 발견했다. 2015년 외국기업인 우드사이드(Woodside)와 함께 참여한 동해심해광구에서 가스를 발견하고, 이듬해 동해-2 가스전에서 생산을 개시한다. 2022년 자원영토 확장을 위한 '광개토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동해와 심해를 비롯한 전 해역에서 탐사작업을 수행 중이다. 한편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유·가스 소비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세계 4위 수입국이다. 국내 대륙붕 탐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미경 기자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연말 탐사시추 목표...생산까지 7~10년 소요" 대규모 비용·기술 필요...해외 기업 투자 유치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생산은 시추 등 확인 작업을 거쳐 약 10년 뒤인 2035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부의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광권을 확정하고 2D 지진파 등을 이용해 탐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연말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 시추를 통해 실제 부존 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개발과 생산 작업에 착수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해 생산을 개시하기까지는 약 7~1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실제 생산 시점은 2035년으로 본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1공 시추에 재원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심해 자원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도 유치한다. 석유공사 해외투자 수익금도 이용한다. 이번 발견한 가스전 외의 유망 구조를 찾기 위한 추가 탐색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구조를 도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 액티지오사에 동해 심해 탐사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맡겼다. 정창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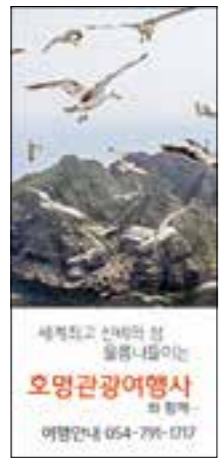
'사별국 복지장군' 주민들 호응 '용광로'

사별국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면 자체 사업



상주시 사별국면의 '사별국 복지장군'에 대한 주민들 호응이 뜨겁다. 이경호 기자

'사별국 복지장군'은 공개모집으로 참여 주민들을 모집, 복지장군으로 임명하고, 이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면 자체 복지사업이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기존 발굴체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굴체계를 마련해 보자는 필요성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자체복지사업인 '사별국 복지장군'을 추진하게 됐다.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경호 기자



단체장 일정



류규하 중구청장은 4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인생백년 아카데미'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4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여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

바르게살기운동 대구협의회, 6월 바르게의 날 캠페인 실시

바르게살기운동 대구협의회는 3일, 큰고개오거리에서 회원 150여 명과 바르게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주제로 순국선

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김대중 바르게살기운동 대구협의회장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중 대구청장은 "동구청도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수족구병 환자 한 달 사이 2배로 급증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1000명당 4월 8.2→5월 18.2명

대구시는 감염병 발생 정보 감시 결과, 대구시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평균 4월 4주 6.5명에서 5월 3주 8.9명

이다. 대구시의 경우 4월 4주 8.2명에서 5월 3주 18.2명으로 전국평균의 2배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0-6세의 경우 4월 4주 11.8명에서 5월 3주 27.5명으로 급증해 주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 증상인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4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한 비말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해 감염

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해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주로 3-4일이 지나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등에서는 장난감, 문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증상 발생 동안은 전염력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

했다. 대구시는 구·군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독관리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족구병 확산 방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지도,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제2회 일본 간사이국제공항 취업설명회

한·일 산학관 협업형 청년 해외취업 지원 모델 구축 협의



수성구는 지난달 30일 영남대학교 제2인문관에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 오피라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채용설명회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후 8개월 만에 열린 취업설명회로 지역 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 간사이국제공항과 도쿄하네다국제공항의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국제항공여객서비스주식회사(WAPS-CKTS), 일본 지방 은행과 제휴해 일본 취업을 지원하는 ㈜윈테라스 관계자가 함께했다.

일본 취업을 바라는 영남대학교 학생 30명이 설명회에 참석, 기업 소개를 들은 후 일본어로 직접 대화를 나누며 채용에 필요한 요건·역량 등을 질문하고 기업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온라인 채용설명회 합격자 2명이 설명회에 특별 참석해 다른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담과 면접 합격 노하우를 들려주며 이들의 꿈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같은 날, 수성구와 일본기업, 영남대학교 관계자 간 간담회도 열어 한·일 산학관 협업을 통한 일본 취업 지원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수성구의 전반적인 행정지원에 협업을 영남대학교가 일본기업취업반을 만들어 고교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취업반 운영 비용은 인재 양성 차원의 투자로 일본기업이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협의 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취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이를 내실 있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쿠보리 국제항공여객서비스주식회사 과장은 "지난해 한국 지자체와 처음 진행한 온라인 취업설명회에서 우수 인재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대구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했는데 학생들의 높은 어학 수준과 적극적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나공수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과장은 "일본 취업을 바라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수성구에 감사드린다"며 "산학관 협업을 통해 꾸준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앞으로도 해외 취업 지원과 문화·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 지역 청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교류 도시와 끊임없이 협업하겠다"며 실질적 국제교류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조미경 기자



북구청,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지난해 시정혁신 최우수상 이어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쾌거

북구청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프로젝트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사업(적극행정 5, 시정혁신 5)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지난달

31일 발표심사에서 전문가평가단의 현장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우수에는 '버려지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찾아내다(대구시 복지정책과)'가 뽑혔다.

북구청 도시행정과는 지난해 '시정혁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적극행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2년 연속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은 단순한 벽화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야기와 특색을 담아 오벽(담장)을 아

름다운 시설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구시 최초로 개발된 담장(오벽) 디자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 완료 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서도 칭찬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중구청,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완료

(CPTED)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동성로 로데오 클럽골목' 류규하 중구청장, 현장 점검

중구청은 동성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구)대구백화점 남문 건너에서 로데오 클럽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구비 2억 7천만 원을 투입했다.

LED 안내판 8개소 외 각종 안전시설물을 보강해 보다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로데오거리 내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요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경찰·소방 분야 협업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한 각종 시설물 설치를 통해 주민 및 관광객의 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안전한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 대상구역인 로데오 클럽골목을 중심으로 2019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구역을 포함해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각종 축제 및 인파밀집 예상 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8곳에 LED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래피티 및 각종 낙서로 인해 관리되지 못해 쓰레기까지 쌓였던 벽면 5개소에 새롭게 벽화를 조성했다.

또 CCTV 안전시설물 설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 도색은 13개소 완료하고, CCTV 설치 안내 사인물 26개 설치, 태양광 도로 바닥표지병 100개를 설치했다. 그리고 부착물 방지커버를 장착하고 지저분했던 가로환경도 정비하는 등 보행길 환경도 개선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범죄예방환경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동성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전시 참여 예술인 공모

13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전시지원사업 예술인 모집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하반기 참꽃갤러리 전시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달성군과의 우수탁협약을 통해 참꽃갤러리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갖게 된 달성문화재단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고자 반기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하반기 전시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개인전을 2회 이상 개최한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증명 가능한 개인 및 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행사성, 종교성, 정치성 및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전시와 비전문성 작품·아마추어 참여 대상 전시 등 전시의 성격이나 수준이 참꽃갤러리가 지향하는 바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년 또는 올해 상반기 참꽃갤러리 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또는 단체 △2024년도 하반기 기준 국·공립 단체나 상법인 기관 등에서 참꽃갤러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을

예정인 예술인 또는 단체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선정 예술인에게에는 △참꽃갤러리 전시 공간(약 55평 규모, 수장고 이용 가능) 무료 대관 △재단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전시 홍보물 제작 △전문 테크니션을 통한 작품 운송 및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전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dydyk@dsart.or.kr)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달성문화재단은 참꽃갤러리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달성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의 문화 예술을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예술인 및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3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속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6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낙동강 줄기 따라 쓰담 달리기 추진

경북교육청이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맞아 생태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24학년도 낙동강 쓰담쓰담 생태잇기(쓰담 달리기)' 이어가기 계몽운동을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신종 환경정화 운동인 쓰담 달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경북 봉화에서 고려까지 282km에 걸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지역의 생태

자연을 확인하고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 행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돼 예천과 영주지역 학생들이 '생명을 품은 낙동강! 우리는 경북 생태 지키미'라는 슬로건 아래 강변을 따라 걷거나 달리면서 환경정화운동을 펼쳤다.



“동해 가스·석유 140억 배럴, 2000조 추정…”

尹 국정브리핑 관련 산업부 현안 질답 리스크 높으면 해외투자 비중 높일 것 1공 시추후 차년예산·동해탐사 3,7억弗

1면에 이어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실제 생산은 시추 등 확인 작업을 거쳐 약 10년 뒤인 2035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과거보다 심해 탐사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을 들어 성공률을 20%로 예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엑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 석을 맡겼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연말부터 실질적인 탐사에 돌입,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산업부 핵심관계자의 일문일답.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액수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는 2026년까지 우선 지속적으로 시추할 계획이다. 최소 5공 이상 시추를 해야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 얼마나 뚫을지는 중간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구체적인 판매가격도 결정되지 않았다. 140억 배럴 기준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면 1조4000억 달러(1927조 3800억원)로 추정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우선 부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매가격도 생산국에 연동되는만큼 그뒤에 판단해야 한다.”

-부존량이 확보되면 국내 밸류체인은 어떻게 되나.

“동해 가스전은 가스공사에서 100% 즉 국내에서 인수한다. 부존량을 확인하면 1일 생산량을 대략 알 수 있다. 그 뒤 어느 정도 국내에 도입하고 이후 해외 판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가

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입할 때)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할 물량을 대체한 뒤 남은 물량을 외국에 팔 예정이다. 이 같은 수입 대체효과와 국내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부존량이 현재 예측한 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나.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우선 연말 시추에 주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탐사계획에서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 대륙붕에서 나온 것이다. 시추에서 발견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우리가 심해 유전과 가스전 경험이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추가 검토도 하겠지만 우선 시추에서 확인하겠다.”

-구체적으로 예상 지역이 어디인가.

“심해 1km에서 더 들어가겠다. 영일만 38-100km 범위로 확장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두 포함. 상대적으로 큰 범위다.”

-예정된 첫 시추는 어느 지역인가.

“구체적인 지역은 말할 수 없다. 다만 경제성 있고 유망하다고 예상하는 부분부터 시추할 예정이다.”

-단일 광구 최대 심해유전 사례가 110억 배럴의 남미 가이아나 광구라고 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 매장량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

“가이아나의 110억 달러는 발견 자원량이다. 탐사를 끝내 수출을 통한 자원량이 110억 달러라는 뜻이다. 다만 그 110억 배럴이 모두 경제성이 있는지는 추가 지출을 거쳐 확인을 해야 한다. 경제성을 갖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광구 양이 다시 부존량으로 또 매장량으로 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가이아나보다 앞 단계인 탐사 단계를 이제 막 끝낸 상태고, 구체적인 심층분석에 돌입하고 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발견 자원량도 나올 것이다. 이후 3D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소 35억 배럴~최대 140억 배럴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발견 자원량 형태로 나올 것이다. 또 분석에 들어가면 경제성 있게 파낼 수 있는 부존량이 얼마인지 확정될 것이다. 이 과

정을 거쳐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는 2035년으로 예상된다.”

-투자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시추공을 뚫어보면 리스크를 가능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국내, 리스크가 높다면 해외 투자유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매장량이 확인되더라도 우리에게 경험이 없다.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어느 업체에서 우리 투자에 관심 있는지 말할 수는 없다.”

-투자비용은.

“시추는 올해 예산에서 석유공사가 출자하고 정부가 지원한 것을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1공 시추 결과가 나온 뒤에는 중간 과정에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갈 지는 확정할 수 없다. 탐사 들어간 비용도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다만 동해 탐사에는 3억70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정명영 기자



제75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제75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안동 남후초 학생 25여 명과 교장 및 교감, 지도교사가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대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1일 도의원 역할체험 활동을 격려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도는 우리 땅입니다’ 및 ‘초등학생들이 피사방을 이용해도 되는가?’ 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 과 ‘미세먼지에 따른 휴교령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인동시 등하굣길 안전강화에 관한 건의안’, ‘교내 핸드폰 사용 제한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김대진 도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홍준표 “TK 행정통합, 지방행정조직 대혁신 출발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 국가100년 미래 그린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3일 “대구경북(TK) 통합 추진은 단순 통합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를 지방자치단체-국가의 2단계 행정체제로 만드는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

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국가 100년 미래를 위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시장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을 구축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통합 내용과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2차 실무회의에서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대구경북 양측의 제안들을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회의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방사대를 열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4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식 지방시대위원장과 4차 회동을 갖고 통합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 기관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 지원의지가 확인되고 통합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제시된다면 이후 통합절차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여은 기자

대구銀 “쓰담쓰담적금 가입…롯데월드 할인”

쓰담쓰담적금 신용카드 결제금액 연동해 최고 연 5.65%(기본 연 3.4%) 우대금리 제공하는 상품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인가 기념 대고객 감사제 i뱅크 Re-Born Festival의 일환으로 롯데월드와 프로모션 제휴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i뱅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쓰담쓰담적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100% 전원 해당 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롯데월드 50%할인권은 어드벤처, 어드벤처 부산, 서울스카이,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5개 업체에 대해 제공되며 이중 1가지를 고객이 직접 i뱅크 앱에서 선택하면 매주 금요일 i뱅크 앱 쿠폰함으로 해당 할인권(1인매)이 제공된다.

쓰담쓰담적금은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연동해 최고 연 5.65%(기본 연 3.4%)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DGB대구은행 BC카드를 사용금

액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연 2.2%를 받을 수 있다.

카드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DGB대구은행 BC카드를 사용하는 고객 중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적금 상품과 결합해 금융 제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을 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거나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전 금융기관 1인 1개좌 상품으로 연령, 주택소유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 내 40%(최대 120만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다양한 협업체와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이번 이벤트로 전국에 자리한 다양한 롯데월드 관련 시설에서 DGB대구은행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자 본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는 7월에도 새로운 롯데월드 협업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롯데월드와 제휴를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i뱅크도 전국은행으로 발돋움하면서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국도7호선-축산항 연결도로 개통...강구대교 완공도 눈앞

경북도가 3일 영덕 축산항에서 국도 7호선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축산항-도곡 간 도로를 개통했다.

축산항-도곡 간 도로는 연장 3.1km에 사업비 471억원을 투입해 2017년 3월 13일 공사가 시작된 후 7년 만인 이날 정식으로 개통했다.

직각에 가까운 곡선 도로를, 축산터널을 설치해 직선화했고 국도 7호선에서 연결 램프를 설치해 축산항까지 접근성을 높였다.

축산항에서 도곡리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로 인해 주민들과 축산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

김성용 기자

김천시보건소, 직장인 대상 '청년 고민 상담소' 운영

김천시는 한국전력기술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청년 고민 상담소'를 운영했다.
행사는 직무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의 정신과 몸을 힐링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방

전된 마음을 점검하여 재충전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이번 '청년 고민 상담소'는 3가지 주제를 정해 운영했다.

정신건강 체험관에서는 각자의 정신건강 관리 방법을 작성 후 부착하면서 타인의 관리 방법도 볼 수 있게 해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
고민 상담관에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자가검진 및 상담이 이뤄졌다.
스트레스 해소관에서는 풍선을 불고 걱정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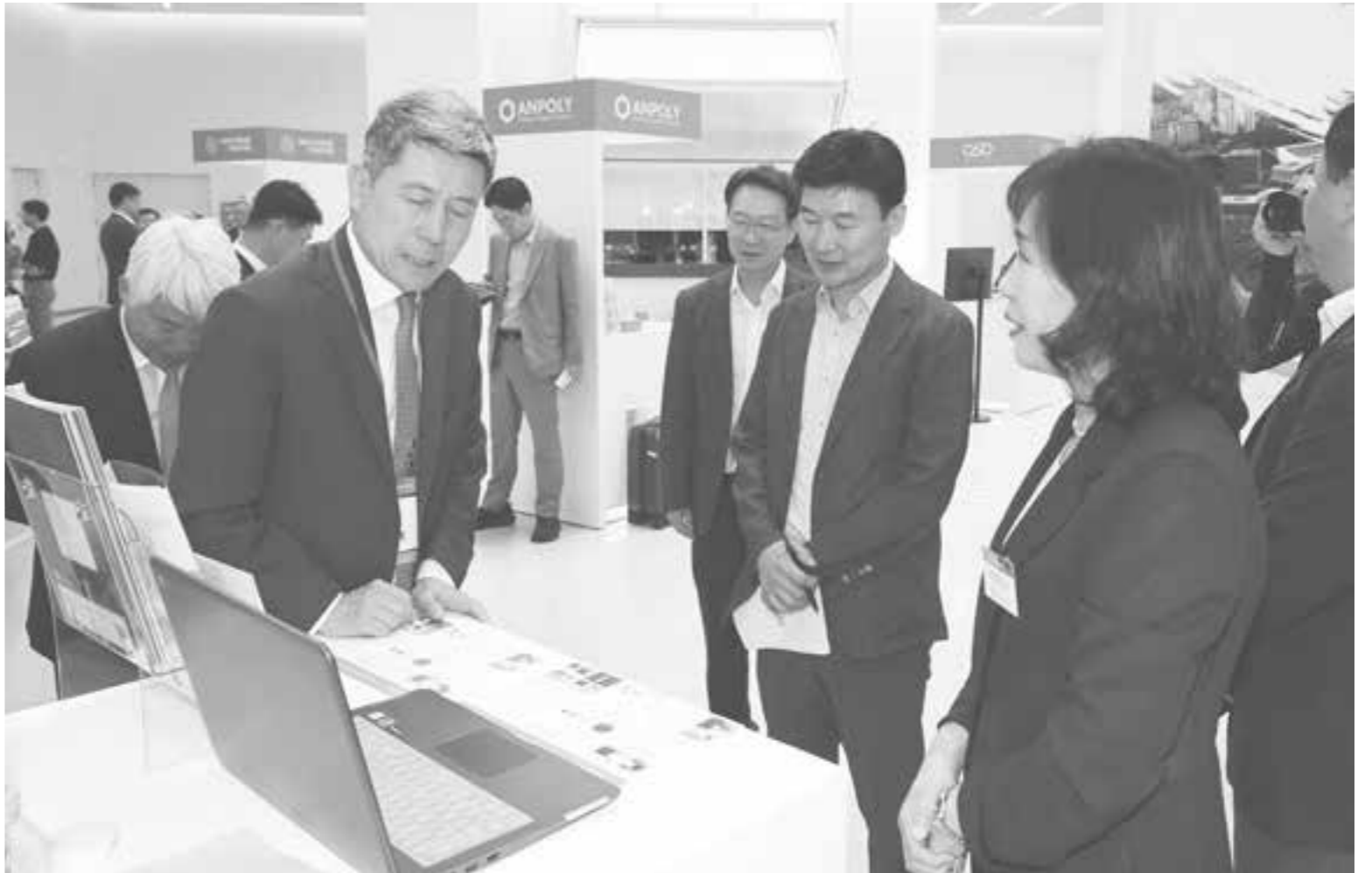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 1조3069억 투입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수송력' 및 접근성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31일 상주 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주관했다. 이날 상주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3069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문경~김천 구간의 철도를 연결 및 고속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L=69.8km(상주시 구간 L=39.9km)를 개량 및 신설하는 사업이다.

에비타당성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주에서 수서까지 72분, 인천 송도까지 1시간 4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하행 방면으로는 동대구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돼 상주시민들의 교통편의성 증대, 물류 수송력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에 따른 사업에 관한 설명 및 환경적 영향 검토 결과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시민들에게 처음 알리는 행사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문경~김천 철도가 하루 빨리 건설되고 개통되어 우리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상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철도건설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사진설명=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제6회 미래 신산업 국제무역상담회의 하나로 CES에 참여,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에서 참가했다.

포항시,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 개최

CES 성과기업 10개사 참여 5건 협약체결 성과 쾌거...

포항시는 지난 1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제6회 미래 신산업 국제무역상담회의 하나로 CES에 참여한 10개 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를 개최했다.
행사는 포항시가 경북도,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한 우수 성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

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전 시장 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ES 참여 기업 중에서 2024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쉐미드바르, 플로우스튜디오(주), 2023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그레핀스퀘어(주) 등 10개의 유망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기업들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에 맞춰 지난달 31일부터 미국·캐나다·일본·인도 등 해외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했다.
1일 현장에서는 원소프트다임 100만 불, 투엔

10억 투자유치 등 총 5개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빛축제에 참여한 해외 도시들에게 포항시의 우수한 ICT 경쟁력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글로벌 성장 능력을 가진 지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ES는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ICT융합 전시회다. 정창명 기자

'yes문경' 축제 성황리 마무리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역 경기 회복 유도



문경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점촌역 광장에서 문경시 소상공인의 날 'yes문경'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축제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노래자랑 예선을 거쳐 지난 1일 본선 무대로 열렸다. 모전들소리의 식전공연으로 축제장 분위기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가수,배우 등으로 다방면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한영을 문경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을 포함,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 20명에게 문경시장·국회의원 표창 등을 수여, 소상공인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소상공인 노래자랑, 초대가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옆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판매, 솜사탕 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배창우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문경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소상공인 보호 활동을 실시, 문경시 등 관련 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책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마케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수상(제)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2024)'에 참가했다.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고유한 문화와 축제·관광 콘텐츠가 모인 이번 박람회에서 재단은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의 관광 및 특산물, 안동의 사계절 축제 등 지역의 대표축제와 관광지를 집중 홍보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박람회는 국내 최신 관광 트렌드를 선보였다.
50여 개 기관이 참여, 다양한 여행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국내 축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 △안동탈춤관련 기념품 전시 △SNS 인증샷 이벤트 △탈놀이단 공연 및 포토존 이벤트 등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

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시가 후원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탈과 탈민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탈 축제이자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로 그동안의 노력과 명성 그리고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7년 처음 개최, 올해 28년째를 맞이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민이 만들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다.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구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송명주 기자

김천, 치매 예방 극복 인프라 구축 '최선'

김천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31일 따뜻한 치매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전달식

을 진행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소속 구성원 전체가 치매 동반자교육받고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과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단체이다.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봉사단을 발굴·연계해 '치매 안심 태양광 벽부등 밝은 집 계몽운동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 이경호 기자

Advertisement for '농지' (Farmland) with details on eligibility, applica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QR code and logos for participating organizations like K-Farm and F&B.



경주시가 지난 1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환경대축제와 연계해 알짜배기 경주소식 신규가입 계몽운동을 했다. 알짜배기 경주소식이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소식, 각종 행사, 생활뉴스 등의 유용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말한다. 대외소통협력관 직원들은 행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 배부하며 알짜배기 경주소식을 적극 홍보하며 가입을 독려했다.

알짜배기 경주소식 가입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주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주낙영, 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전



주낙영 경주시장이 3일 경주시청 내 알천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주시 '당정협의회' 개최 경주발전이라는 공동목표 향해 다함께 뛰어보자 ...

경주시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전에 나섰다. 시는 3일 청사 내 알천홀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 및 국비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인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회 박승직·배진석·정경민·최덕규·최병준·황명강 의원과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전략은 물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대응전략과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주낙영 시장이 주요 성과를 보고하자 김석기 국회의원이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당정협의회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사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문무대왕릉 성역화 △보문관광단지 리뉴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 구축 △농소~외동간 국도 4

차로 건설 △매전~건천간 국도개량 등이다. 부자 농어촌만들기를 위한 △청년농촌보급자 리 조성사업 △과학영농 실증 교육관 건립 △스마트 ICT 기술지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경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70세 이상 어르신 등 시내버스 무료승차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성경1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에 대해서도 협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 정책 현안사업으로 △경부선-동해선 고속도로 연결 △지방도945호선 국지도 승격 △국립 산림과학관 조성 △국가하천 현상강 하천 환경정비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쏟기로 합의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외교부와 대통령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정상회의 개최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당정이 뚝뚝 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철우 시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뛰어주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APEC 정상회의 개최 회의 인프라 '충분'

2005 부산 APEC 회의장... 사용면적 비교 2014m² 초과 경호안전 운영 편의성 최상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회의에 최적화된 충분한 회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시 소요된 정상회의장, 각료회의장, CEO서밋 회의장 등의 사용면적 2만6185m²와 비교하면 경주는 총 2만 8199m²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 회의장이 3분 이내 거리에 배치돼 있어 짧은 이동 동선으로 경호안전과 운영 편의성에 최상이다.

제1회의장으로 활용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보문단지 내 위치한 국제 회의장 및 전시컨벤션센터로 최첨단 회의·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시장 1만1594m² 규모의 증축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양질의 국제회의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의장으로 사용될 육부촌은 서라벌의 6개 촌장들이 모여 화백회의를 진행했던 곳으로, 경호부를 모티브로 설계한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다.

제1회의장과 불과 0.5km 떨어진 전통 한옥 형태의 보문관광단지 종합상가는 개보수를 통해 APEC 사무실로 제공 가능하다.

2022년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m²가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5개 법정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비 지원과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한 관광기금 지원을 비롯해 영업 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70조) 수준 혜택도 누린다.

시는 한일정상회담(1993년), G20 재무장관회의(2010년), APEC 교육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OWHC 세계총회(2017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역량도 갖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역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APEC 정상회의로 기억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시·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집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반드시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교촌마을 예약당, 문화예술 공간 재탄생

웰니스와 전통문화예술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적극 앞장



경주교촌한옥마을에 소재한 예약당에서 지난 30일 풍류 경주학포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주교촌한옥마을에 소재한 예약당에서 지난 30일 풍류 경주학포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주학포럼 교수, 경북도행복대학 경주캠퍼스 학생, 관광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예약당은 지난 5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문화예술공연 및 체험 장소로 새롭게 출발했다.

예약당 강준영 대표의 통일신라시대 무용 고찰을 통한 경주전통춤 콘텐츠 개발이라는 연구 발표에 이어 한기무(통일신라시대기록 중심 궁중무용 경주 전통춤), 민요, 판소리, 경주역사기록 중심 국가무형문화재인 처용무 등 다양한 공연을 시연했다.

당일 교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전통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힐링이 있는 특별한 경험을 체감했다.

예약당은 웰니스 관광을 관광산업의 꽃으로 보고, 웰니스와 전통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재훈 관광컨벤션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월일이청정보존회, 학술서 출판기념회

‘영덕 월일이청정 학술서’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영덕월일이청정보존회는 1982년 영덕여고 학생들에 의해 처음 시연된 이래 42년을 이어온 보존회의 역사를 담고있다.

행사에서 학술서 집필에 참여한 석대권 경북도 무형유산 위원, 정서는 경북도 무형유산 전문위원, 최수양 영덕월일이청정보유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2부에선 오십천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의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전통춤 등의 축하공연을 펼치는 ‘와글와글월일이청정’ 행사를 열었다.



영양군, 제21회 영양군수기 축구대회

제21회 영양군수기 축구대회가 지난달 31일 영양광설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회에 읍면·클럽·기간단체부로 구성된 총 30개 팀 120명이 참가,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읍면부 우승 임암면, 클럽부 우승 돌핀스A, 기간단체부는 영양농협이 차지했다.

영양군은 영양군대표 생활체육 종목으로 축구의 발전과 지역 동호인의 화합을 위해 매년 영양군수기 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축구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 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회가 영양군 축구 동호인의 화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영양군 체육회 주최, 영양군 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청송군, 총의사 의병 선열추모제례 봉행

청송군은 지난 1일 ‘제14회 의병의 날’을 맞아 의병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의병선열추모제례를 청송향일의병기념공원 총의사에서 봉행했다.

‘의병’이란 나라가 위급한 순간에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하여 외세에 대한 민군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업무 강화

2024 상반기 관리감독자 대회의실에서 집체 교육

울진군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16시간 중 온라인 교육 8시간 및 집체교육 4시간을 실시했다.

군은 4월 한 달간 전체 팀장 155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대회의실에서 집체교육을 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에 교육의 중점을 뒀다.

군은 일상점검체크리스트를 활용한 3단계 상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 중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자율·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군은 8월 중 하반기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는 일선 관리감독자와 직원들 간 소통이 중요하며, 관리감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직원의 복지증진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군, 세계 금연의 날 등곳길 계몽운동

청송군이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등곳길 계몽운동을 했다.

행사는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진보중·고와 청송초 주변 통학로에서 학교 교직원, 학생, 경찰관 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5월 31일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금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중·고는 교직원 및 학생 15여 명이 참여해 등교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홍보 손팻말과 어깨띠를 돌려 구호를 외치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제공했다.

청송초 주변 통학로에서도 청송경찰서 관계자, 금연지도원과 함께 금연 계몽운동을 진행,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등곳길 계몽운동 등 지속적인 흡연 예방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흡연연구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금연 환경을 조성할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6월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동참

청도군 매전면 지전2리와 청년회는 지난 2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가졌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는 국기 관리법과 게양법을 홍보, 국기가 없는 가정에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달아주는 행사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참여자들은 지전2리 일원 가가호호를 방문해 총 40여 가구에 게양대 설치 및 태극기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회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경건한 하루가 됐다” 말했다.

태극기를 지원한 지전2리 전교회 이장은 “날이 갈수록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줄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벼농사 모내기 전통농경문화 체험

이색적 관광자원 기대 농사체험 소중한 시간

울릉군이 벼농사 모내기로 전통농경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지난달 31일 서면 태하리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울릉군청, 군의회, 울릉농협, 농업인단체, 관내 초등학교 등 70여 명이 참여, 2400㎡의 다랑논에서 손모내기, 새참 등 벼농사와 관련한 전통

농경문화 체험행사를 했다.

벼품종은 바람, 농업용수 등 지역의 환경여건을 반영, 단간형인 ‘울광’, 영진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자체육성해 보급하고 있는 중만생종인 ‘다솜쌀’을 선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35년만에 울릉도 벼농사를 재현한 데 이어, 올해는 서면 태하리, 북면 현포리 일대로 재배면적을 확대, 벼품종 지역적응성시험연구를 병행 수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남양초등학교 A교사는 “아이들과 모내기 행사에 참가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벼농사에 대한 이해와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벼농사를 통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주시인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벼에 대한 애정취를 소환,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강구면, 건강활력센터 준공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풍물패 지신밟기 23개 마을 9개팀 열띤 경쟁 펼쳐...

영덕군 강구면이 강구건강활력센터 준공을 기념해 지난달 31일 제18회 강구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김동희 영덕부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의장과 의원들, 김준태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장, 김서규 영덕군 체육회장 등의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비롯해 재경·재포 강구면 향우회장 등의 출향인과 지역민 800여 명이 참여했다.

강구면 풍물패의 지신밟기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23개 마을이 9개 팀을 이뤄 진행됐다.

하저리와 금진1·2리 연합팀이 우승을, 오포리 팀이 준우승, 금호1·2·3리 연합팀이 화합상을 차지했다.

대회를 주관한 강구면 체육회의 한용규 회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건강복합센터가 차질 없이 준공돼 주민들께서 생활 체육을 즐기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관광 명소이자 지역발전의 중심에 있는 강구면에 더 나은 생활복지를 실



현할 건강복합센터가 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건강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강구면민들의 기대에 부합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 강구건강활력센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으로 개발하게 됐다.

터 1만5092㎡ 연면적 242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과 함께 잔디광장, 야외무대, 주차장 등의 주

민편의시설도 갖춰졌다.

강구보건지소는 기존의 진료업무를 포함해 앞으로 방문 건강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등의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확대 이 전한다.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도 마련돼 주민들의 생활복지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5월 인사왕 공무원은 누구?

울진군은 ‘5월 인사왕 공무원’으로 재무과 윤지훈(세무9급), 안전재난과 윤민수(시설9급), 매화면 신예원(행정9급)을 선발했다.

‘인사왕 공무원’선발은 먼저 인사하는 문화 확립을 통해 직원 간 상호존중 및 화합하는 공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데, 이번에는 본청 2명, 읍면 1



명이 선발됐다. 선정된 윤지훈 주무관(세무9급)은 민원인 방문 시 친절하게 응대하고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윤민수 주무관(시설9급)은 잦은 현장 출장에도 친절한 자세로 민원을 응대하며 화기에 애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었다. 신예원 주무관(행정9급)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를 하며 평소 먼저 인사하기 실천을 통한 직장 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이정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천시청 탁구동호회
3년 연속 3위 입상

영천시청 탁구회는 지난달 31일 구미 복합스포츠텐터에서 개최된 제20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경북도와 19개 시·군 260여 명이 참여했다.

영천시청 탁구회는 남부 선수 9 명이 출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위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탁구를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요왕 탁구회장은 “회원들이 업무로 바쁜 와중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 훈련에 매진한 결과, 3년 연속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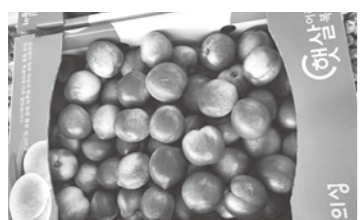
봉화, 역사가 숨쉬는
이오당 문을 열다

조선후기의 문신인 잠은 강습의 위패를 모신 사당 '이오당'이 강신창 종손의 개문일 알림으로 2024년의 공식적인 첫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오당 기문해석집' 증정과 문중 종회소 수리완료 보고, '이오당과 정자사색길' 선정 설명 및 봉화 정자와 정신문화에 대한 토론 진행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채워졌다.

이후 '범계사실'과 '경체정'을 잇는 정자사색길을 직접 걸어보는 것으로 개문식이 마무리됐다.

이오당의 후손인 강필구 후손은 “봉화의 자랑인 정자와 정자문화 체험은 한류의 본질이며 한국 문화의 정수이기에, 공동체의 식과 교육의 결집인 이오당 개문식을 통해 현대인의 피폐한 정신세계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의성 신비 복숭아,
올해 첫 출하

의성 신비 복숭아가 첫 출하했다. 신비 복숭아는 의성군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로 여름을 알리는 과일이다.

도리원 복숭아작목반이 30일 박진철 조합원이 생산한 출하된 신비 복숭아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다. 이날 작목반은 신비 복숭아 30상자를 대구소재 유통업체로 출하했다.

영천시,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1조4,126억 편성

현안사업 및 저출생 극복,
지역 인프라 확충에 중점

영천시는 3일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 412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핵심사업, 저출생 극복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 1조 2903억 원보다 122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013억 원 증액한 1조 339억 원, 특

별회계는 204억 원 증액한 1359억 원, 기금은 6억 원 증액한 2428억 원이다.

주요 분야별로 지역시책 및 현안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장애인형 포함) 62억 원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25억 원 △금호일산산업단지 조성 20억 원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20억 원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인구감소 대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28억 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 6억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2억 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억 원 △K-U시티 조성(인력양성, 정주환경) 2억 원 △중고교시설활용 돌봄 공동체지원사업 1억 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억 원 △돌봄센터 아동 급간식비 및 입산부 예방접종 지원사업 1억 원 △입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1억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3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의성상록자원봉사단' 호국동산 정화활동 펼쳐

봉화군, 2024년 제1차
송아지 렘피스킨 백신 접종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선열의 거룩한 뜻 기려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산하 봉사단체인 '의성상록자원봉사단'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3일 의성읍 중리리 호국동산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단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혼탑, 항일독립운동기념탑, 호국충혼비 등 호국동산 주변에 산재한 생활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는 등 현충시설 주변을 말끔하게 청소했다.

이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나라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이 보다 산뜻한 마음으로 추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음에서 실시했다.

의성상록자원봉사단은 지난 2017년 발족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족한 봉사단체로 단원 26명이 복지시설 청소 및 재능기부, 환경정화 활동,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건호 봉사단장은 “현충일을 앞두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현충시설 주변을 청소하게 되었다. 그런 활동에 공직자 출신인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계기를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민선8기 공약사업, 우회 불편함 해소
사업비 110억 원 한국도로공사와 분담

의성군은 민선8기 공약인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다.

군은 지난 2020년 사전타당성 분석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시설기준 및 설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시행했다.

특히 2022년에는 경제적 타당성만을 평가하던 방식의 고속도로IC 설치 기준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 결과 지점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방 소도시의 특성상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된 종합평가에서 지난 3월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자체 검토를 거쳐 사업이 본래도에 오른만큼 이는 지역의 어려움을 풀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옥산 및 점곡면민은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있으나 북의성IC까지 약 12~22km를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점곡옥산하이패스IC는 점곡면 읍암리에 상주방면 진출입로와 영일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0억원을 한국도로공사와 분담해 시행한다.

현재 IC설치를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24년 군비 분담금 6억원을 편성한 만큼 6월 중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세부설계 및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선8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하나의 역점사업이 본래도에 오른 만큼 의성군에서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사업이 선정되었고 점곡옥산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농산물 수출의 원활 및 관광객들의 방문에 편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군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 (최 월세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5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korykmj@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최근 급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영백 기자

성주군, 2024 청렴시책 추진 보고회 개최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목표



성주군은 3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 청렴시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병환 성주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전 실과소장·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및 '부서 1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청렴의식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시스템 구축 및 사전 예방의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청렴교육, 청렴도크르서트, 청렴해피콜, 청렴주간운영 등 세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성수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간부공무원들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34개의 청렴시책을 보고하고,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문화개선과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부서별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창간 28주년

※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2024 대구광역시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 참가자 전원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우순실



가수 백봉기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